
청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

「일자리 첫걸음 보장제」 추진방안

2025. 9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청년 일자리 상황 1

II.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3

III. 새 정부 청년고용정책 방향 5

I. 청년 일자리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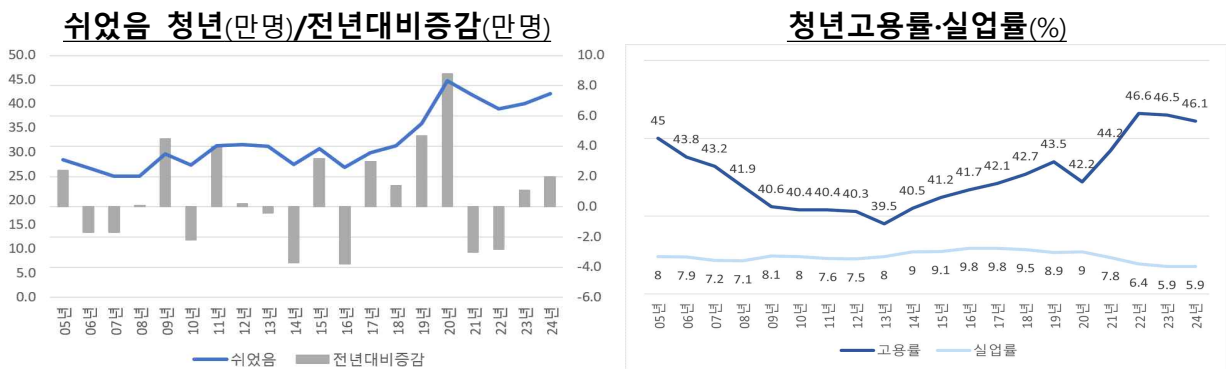
① '쉬었음' 청년은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호

○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, 쉬었음 청년 40만명대 유지

–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데 쉬었음은 지난 5년간 약 10만명 증가, 현재 청년 인구의 5.5% 차지

* ▲ '24년 청년고용률(46.1%)은 '00년 이후 역대 3위, 실업률(5.9%)은 역대 최저

▲ 쉬었음 청년 평균(명): ('05~'09) 27만 ('10~'14) 30만 ('15~'19) 31만 ('20~'24) 42만



○ 이는 '괜찮은 일자리'의 문은 좁아지고, 경쟁은 격화되었기 때문

– 저성장 국면에 공채 급감·경력직 선호로 신입의 진입기회 축소

*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채용 82% vs 신입채용 2.6%(대한상의, '25.6)

– 특히 지식기반산업 신입 사무직 일자리는 AI 대체가 빠르게 진행

* 링크드인 채용공고 분석 시, 신입 사무직 채용은 '22년말 이후 **18% 감소**(IESE, '25.7)

– 정규직 채용이 위축되면서 사회 초년생이 차지하는 불안정·단기 일자리 비율 증가

* ▲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: ('23.7) 0.60 → ('25.7) 0.39(IMF 이후 최저)

▲ 20대 비정규직 비율: ('14) 32% → ('25) 43.1%, 단시간근로자: '22→'24년 5% 증가

현장의 목소리

“지금은 완전한 구인자 우위 시장이에요. 대기업은 중고신입이 채우고 경력자들도 더 낮춰서 이직하는데, 신입은 자리가 없죠.” -채용포털 관계자-

“AI 때문에 앞으로 누가 필요할지, 필요 없어질지 모르니 채용 못하죠.” -AI업체 대표-

② 청년은 ‘단군 이래 최고 스펙’ 을 갖춰도 일자리 진입 실패

- 청년에게 첫 직장은 향후 이직과 경력 형성을 좌우하는 기준점
→ ‘좋은’ 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과 취업 실패 부담이 큼
 - * '25.上 이직을 시도한 전체 직장인 중 ‘상향 이직’ 성공비율 약 12%(사람인, '25.7)
- 그러나 ‘경력이 없어 취업 못하고,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’ 악순환
 - 예전에는 기업이 신입을 가르쳤지만, 이제는 취업 전 직무능력을 모두 갖추고 오도록 요구 → 청년 개인이 훈련 부담을 지게 됨
 - * “경력직·수시채용 증가는 비경력자 훈련 비용 부담에 따른 기업의 선택”(한국은행, '25.2월)
-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은둔·고립으로까지 이어짐

③ 취업·직장적응 실패가 반복되면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짐

-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,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겪으며 이직을 반복하다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 상당수
 - * ▲ '24년 첫 직장 근무기간: 평균 1년 6.4개월(전년 대비 -0.8개월)(통계청, '25.7)
▲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: <1위> 보수·근로여건 불만족(46.4%), <2위> 계약종료(15.5%)
 - 청년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여건, 피해야 할 ‘문제 기업’ 정보 부족, 성장·경력개발의 미래가 불투명한 점 등이 원인
 - * 임금체불 명단공개 800여개, 잡플래닛(기업 평점 플랫폼) 기업 42만개 vs 중소 800만개
- 쉬었음 상태가 지속되면 취업의욕 감소·노동시장 복귀 가능성 급감
 - * ‘쉬었음→취업’ 성공률 5.6% vs ‘실업→취업’ 성공률 26.4%(한국은행, '24.11월)

현장의 목소리

“구인공고 보면, ‘신입인데 이걸 다 해낸 사람이 있다고?’ 싶게 많은 걸 요구해요. 그럼 저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” -일경험 없는 쉬었음 청년-

“첫 직장은 2교대에 방진복 착용하는 힘든 곳이었어요. 이렇게 계속 버텨도 앞날이 안보이니까, 돈 적게 쓰고 쉬는 게 낫다 싶어서...” -일경험 있는 쉬었음 청년-

❖ 근본적인 ‘쉬었음’ 예방·해결을 타겟팅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 필요

II.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

①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

- [특성] 장기 구직단념, 고립·은둔 등 즉시 취업 어려울 가능성 → 본격 취업지원 전 심리상담·일상회복 등 사전단계 필요
 - [문제점] 발굴 수단(out-reach)과 '회복지원 프로그램' 부족
 -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는 경우 상당수, 정책에 일회성으로 참여하더라도 다시 포기할 확률도 높음
- ⇒ 취약 청년을 발굴-찾아가는 시스템 구축 + 회복·재도전 지원

② 일하고 싶은 청년

- [특성]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 대응, 경력직 같은 신입 되기 희망
 - 직무경험을 쌓는 인턴·일경험을 가장 필요로 함
 - [문제점] 청년 수요에 비해 기업의 일경험·훈련 제공 부족
 -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형편에 따라 충분한 취업준비 어려움
- ⇒ 기업의 일경험 기회 확대 + 구직활동 보장 강화

③ 일하는 청년

- [특성]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기본을 지키는 일터*에서 성장하기를 희망
 - * 일자리 하한선: 연2,823만원/야근 주3회 內/필수시설 1위 “청결한 화장실”(대학내일, '24)
 - [문제점] 입사 전에는 회사가 기본을 지키는지 알기 어려움
 - 일하면서 복지·근로여건, 자산형성·경력개발 가능성 등에 불만족
- ⇒ '기본을 지키는 중소기업' 정보 확산 +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지원

쉬웠음 청년의 주요 인식과 행동 양상 (대학내일 조사, '25.上)

[❶ 직장경험이 있는 청년: '원하는 일자리' = '상식적인 일자리']

- ▶ 청년들은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희망,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기보다는 퇴사를 선택
- ▶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최소 기준
 - 최소연봉: 2,823만원 / 통근시간: 63분 이내 / 추가근무: 주 3.14회 內
 - 입사 시 수용 가능한 최소 조건
 - ① 고용 형태: ▲ 1위: 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도 가능
▲ 2위: 업무·조건에 만족하면 고용형태 무관
 - ② 사내 시설: ▲ 1위: 청결한 화장실, ▲ 2위: 사내식당·카페
▲ 3위: 복사기·흑한기 냉·난방, ▲ 4위: 휴게실 등
 - 이 정도 기준만 충족되었더라도 퇴사하지 않았을 것 같다
 - ①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나의 성장,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
 - ② 반말·갑질,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 아닌 최소한의 존중
 - ③ 최저임금·주휴수당 지급, 쓸모없는 야근·주말출근

[❷ 직장경험이 없는 청년: 코로나19 영향으로 '불안'이 큰 세대]

- ▶ 코로나19 기간에는 불가항력적인 쉬웠음 상태로 인식
 - 엔데믹 이후에는 어려운 취업 상황을 본인 의지에 의한 '쉬웠음'으로 인식
- 대학시절 대면활동 제한으로 긍정적 경험 부족, '태도 역랑' 저하
 -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경직적으로 취업 도전 후 실패 시 무기력·우울 등 경험하는 사례 多
- ▶ 복잡한 취업준비 여정 그 자체가 청년들에게 공포로 인식,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'진짜 취준'의 기준에는 부족하다고 생각
 - 청년의 눈높이가 높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
 -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축소 + 원하는 인재상 기준 高, 채용전형이 복잡 (서류+인적성+AI면접+영어인터뷰+임원면접)해지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향
- ▶ 사회경험이 생길수록 유보임금 감소(19~24세 3,426만원 vs 30~34세 3,358만원)

Ⅲ. 새 정부 청년고용정책 방향

❖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‘진짜 성장’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것

- 아울러, ①청년의 쉬었음 장기화를 예방하고 ②경력형성 부담을 완화하며 ③취업·직장적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패를 줄이도록 지원 필요

[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모습]

목표

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 지원

정책방향

- ✔ 미취업 청년 DB 구축, 「**발굴-다가가기-회복**」 체계 마련
- ✔ 현장에서 배우고, **SI**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
- ✔ 기본 근로여건 보장, **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지원**

대책

01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 → 회복할 기회 보장

<p>✔ 상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약청년 정보 부족 발굴·접촉 수단 부재 심리적 어려움 	<p>✔ 추진 과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발굴] 미취업 청년 DB 구축 ▶ [다가가기] 온·오프라인 1:1 취업지원 연계 ▶ [회복] 심리상담·포용적 일·경험 제공
---	--

02 일하고 싶은 청년 → 일할 기회 보장

<p>✔ 상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력형성 부담 SI 등 미래분야훈련 부족 구직기간 장기화 	<p>✔ 추진 과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기회]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▶ [성장] SI 등 “훈련·일경험·취업” 패키지 지원 ▶ [취업] 똑똑한 취업전략·안정적 구직활동 지원
--	---

03 일하는 청년 → 기본을 지키는 일터 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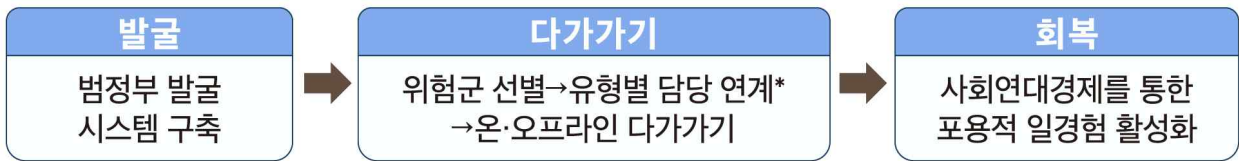
<p>✔ 상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동법 준수 기업정보 부족 청년 상식·현실 미스매치 	<p>✔ 추진 과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기초] 체불·산재·괴롭힘 없는 일터 정착 ▶ [발전]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일터 확산
--	---

1 쉬었음 청년: 「일자리 첫걸음 플랫폼」으로 발굴-접근-회복 지원

청년의 일자리 상황·인식

- 장기 미취업 청년 설문조사: ▲ “삶에서 일이 중요하다” 85%, ▲ 1년내 취·창업 희망 68%, ▲ 필요한 도움: 직업훈련·교육(59%), 취업알선·정보제공(55%) 등(한고원, '25.3월)
- 쉬었음 청년 구성: 남성(59%), 20대 후반(46%), 고졸 이하(58%) 비율 高, 직장경험 보유(70%),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(31%) 다음일 준비를 위해(21%) 쉬었음

[일자리 첫걸음 플랫폼(안)]



* ① 취업지원(노동(고용센터), ② 고립은둔복지(청년미래센터), ③ 경로단절교육(거점직업계고)

※ [유사사례: 위기가구 관리시스템(복지부)] ① 위기정보 입수·분석 → ② 발굴 대상자 구성 → ③ 지자체 분배 → 대상자 접촉 지원

[발굴] 학생 및 군 장병 정보 수집, 미취업 청년 DB 구축

- ① 고졸·군장병 대상 취업지원 목적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반 → 고용보험DB와 연결하는 「일자리 첫걸음 플랫폼」 구축('26.上~)
 - * (예) ▲ 고졸: 졸업 전 3학년 2학기 기간 내 정보제공동의 포함 추진(교육부·교육청 협업)
 - ▲ 군장병: 전역예정자, 취업맞춤특기병 등 우선 지원 대상 고용보험DB 연계 방안 마련
 - ② DB정보 활용(실업·훈련 이력 등), 장기 미취업 위험군 선별(약 15만명)
 - * 니트化 등 장기 미취업 위험 진단(예): ▲ 고용보험 상실기간↑, 자발적 실직 ⇒ 위험↑
 - ▲ 근로시간 長, 훈련참여 등 ⇒ 위험↓(「청년 니트 위험군 발굴 모델 개발」 연구, '25.7월)
 - ③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(노동부·복지부·교육부 공동)
 - 노동부가 초기 스크리닝으로 위험도·유형 분류, 담당부처 연결
 - ▲ 고립·은둔형(복지부): 청년미래센터 담당, 정신건강·일상회복 중심
 - ▲ 경로단절형(교육부): 거점 직업계고 담당(교사) 멘토링·재훈련 연계
 - ▲ 반복이탈형(노동부): 고용센터 담당,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
 - * ▲ (경로단절형) 직업계고 졸업·중퇴 후 미취업, ▲ (반복이탈형) 구직·단기취업 반복
- 부처 간 정보공유·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마련(「청년고용법」 개정)

[다가가기] 온라인 유인 + 오프라인 1:1 접촉

- [온라인]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심리상담·커리어진단·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안내 + 오프라인 서비스 동의 유도('26.下~)
- [오프라인] 각 부처가 서비스 동의 청년 1.5만명에게 직접 연락 → 초기 상담 후 중앙부처·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연계('27년~)
 - * 연 15만명 청년 대상 온라인·문자로 서비스 참여 요청 → 동의율 10% 가정 시 1.5만명 예상
- 「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+센터」 10개소 지정·운영비 집중 지원, 지역 내 쉬었음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('26안. 60억원)

[회복]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 하도록 지속 지원

- 취업할 용기를 낸 청년을 위해 '포용적 일경험' 확대 →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해소·점진적 적응 유도('26년~)
 - 사회연대경제*·공공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 활성화
 - * 사회적기업(노동부), 협동조합(기재부) 등과 연계

포용적 일경험은 이런 모습입니다

- (안무서운 회사) 은둔 경험 청년을 다른 은둔청년·가족의 멘토로 육성(은둔고수 프로그램) → 은둔고수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은둔 청년들의 일상회복·관계를 돕는 워크샵 기획·운영
- (니트컴퍼니) 니트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상회사, 13주간 '회사놀이' → 스스로 일일업무를 정하고 온라인 출퇴근·인증하며 루틴 회복, 관계맺기 연습 및 봉사활동 참여

- 재도전 과정에서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심리상담 지속 병행('26년~)
 - 심리상담 앱·플랫폼과 협업, 내일배움카드로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관리·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 제공
 -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 패스트트랙 신설, 청년은 상담 우선 연결 및 청년미래센터(복지부)와 협력하여 마음회복 지속 지원

2 구직 청년: 현장에서 배우고, 시를 기회로 도약

청년의 일자리 상황·인식

- **일자리 문제 정책과제** <1위> 양질의 일자리 창출(33%), <2위> 구직기간 경제적 지원(18%), <3위> 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험 확대(16%) (미취업청년 설문조사 결과, 한경협, '25.4)
- **500대 기업 조사**: ▲ **신규채용 결정요소**: <1위> 직무 일경험(36%), <2위> 직무역량(27%), ▲ **최우선 취업지원**: 일경험 기회(76%), ▲ **방식**: 3~6개월 인턴십(74%) (한고원, '24.3)

[기회] 대기업 청년 일경험·훈련 확대 캠페인 실시

-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·운영 중인 인턴·일경험·훈련·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식 개최('25.末)
 - * <해외사례: 美 Apprenticeship 캠페인> ▲ (기업) 아마존·MS 등 참여, 청년 훈련·인턴·기업 매칭 지원, ▲ (정부) 캠페인 홍보 및 기업-청년 매칭 플랫폼 운영, 인센티브 부여
- 관계부처(노동부·교육부·과기부·산업부 등), 경영자단체 및 주요 대·중견기업 등과 공동 개최 추진

「일자리 첫걸음 캠페인」 추진방식

- (기업) 대·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, 신입 역량강화를 위한 인턴·일경험·훈련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확대 실시(방식 자율)
 - * 예: [현대차: 소프트웨어 부트캠프] IT·디자인 교육(8주) → 현대·기아 IT직무 채용기회 부여 [LG전자: DX School] 빅데이터·AI 교육(6개월) → 우수 수료생 서류전형 가점 부여
 - (정부) 참여기업 홍보 및 동반성장지수 가점·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, 인턴·일경험의 노동법 관련 분쟁 예방, 인턴 경험 취업 포트폴리오화 지원 및 취업지원 연계
- 권역별 정부-지자체-지역은행-지역대학이 함께 하는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 릴레이 개최('25.9~11월), 채용 분위기 확산
 - (정부·지자체) 지역특성에 맞는 박람회 기획·청년정책 연계 등 (대학) 구직자 모집·매칭, 채용까지 사후관리(대학일자리+센터) (지역은행) 참여기업 모집 및 우량 중소기업 선별
 - * 10개 지자체 참여 예정(창원·여수·제주·청주·원주·광주·부산·수원·대구·대전)

[성장] AI 활용인재 성장 3단계 트랙 신설 (훈련-일경험-채용)

-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도록 KDT 개편
 - * [사례: 삼성 SSAFY] SW교육(1년) → 반기별 채용박람회 개최, 수료생 우대 + 채용정보 제공
- (1단계) 청년 5만명에게 AI 선도기업·대학에서 AI 융·복합 포함 AI·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 실시('26년~)
 - * 선도기업, 대학 등이 운영하는 AI 고급 과정(1만명)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등 우대 조치
- (2단계) 훈련 종료 후 관련 직무 일경험으로 연계('26안. 2천명 목표)
 - * 연계사업 참여 기업·대학 등은 KDT·일경험 우선선발 및 성과평가 우대
- (3단계) 다양한 산업·직무의 「AX 인재 채용박람회」 추진('26년~)

[취업] AI 취업전략 수립과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

- 구직기간 중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
 - * 국민취업지원사업(Ⅰ 유형) 추진안: '25년 50만원 → '26년 60만원(+10)
- 임금분포 정보와 연계하여, 생애 노동소득 기반 경력 설계 지원
 - 규모·업종별로 근속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분포 안내, 정확한 기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지원

생애 노동소득 정보 기반 경력 설계

- (편견) 중소기업은 연봉은 평생 대기업 절반 수준, 고용안정성도 낮음 → (현실) 중소기업 고소득자 수 > 대기업 고소득자 수, 70대까지 일할 가능성 더 높음
 - * 업종·규모별 생애 노동소득 분포 연구용역 중('25.3~)

- AI가 개인의 취업 강·약점과 성공확률을 분석해주고,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는 훈련도 추천하는 AI 1:1 취업지원* 제공('25.9월~)
 - * ① 지능형 직업심리검사, ② 취업확률모델, ③ AI 직업훈련 추천, ④ AI 일자리 매칭

3 일하는 청년: 기본을 지키고, 존중받으며, 성장하는 일터 확산

청년의 일자리 상황·인식

- 청년의 일자리 하한선: ▲ 연봉 2,823만원/야근 주3회 內, ▲ 청결한 화장실·냉난방 등
- Z세대 취준생 설문조사(채용플랫폼 조사, '24.10월): ▲ “지원 전 기업정보 찾아본다” 81%, ▲ 궁금해도 찾기 어려운 기업 정보: 1위 연봉인상률(32%), 2위 조직문화(27%) 등
-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(청년유니온, '19.10): ▲ 고용불안정(정규직 희망고문, 수습남용), ▲ 장시간노동(초근강요, 수당미지급, 휴가제한), ▲ 직장내괴롭힘(인격침해, 따돌림) 등

[기초] 체불·산재·괴롭힘 없는 일터 정착

- [노동법 준수] 청년 구직자에게 기본을 지키는 기업 정보 제공, ‘체불·산재·괴롭힘 없는 회사’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('26년~)
 -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, 채용 기업 대상 노동법 준수 여부(체불·산재·괴롭힘 유무 등) 확인 신청 접수 → 구직자에게 정보 공개
 - 청년에게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제공('25.9~)
영세기업에게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서비스 제공('26년~)
 - * 청년들이 알바 구직 시 활용하는 당근마켓에도 탑재, 구인공고 관련 즉시 상담 가능
- [권익 보호] 청년 비중 높은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「일터 권리보장 기본법」 제정('26.上, 공정계약/차별·괴롭힘 금지 등)
 - 권익보호 상담·분쟁해결, 사회보험, 육아 등 부문별 지원 마련
 - * ▲ (권익보호) 미수금 회수 무료 법률구조 지원, 권역별 상담센터 운영, 쉼터·문화 등 복지지원
▲ (사회보험) 저소득 노무제공자 보험료 지원, 산재시 휴업급여 지급,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 지원
- [정당한 보상] 청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임금체불 근절, 포괄임금제 제한, 가짜 3.3 감독 및 노동자 추정제도 마련
 - * 청년 다수 고용 업종·지역(식음료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등) 임금체불 집중 감독 실시
- [안전한 일터]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·위험공정 개선, 산재예방 시설·설비 지원 등 일터 안전 강화
 - * 중소기업장의 유해·위험 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('25. 4,968억원)

[발전]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일터 조성

- [인식개선]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*('26.下~)
 - * 기업들이 청결한 화장실, 복사기·복합기 냉난방 등 '기본적인 근로환경'을 갖추도록 홍보
 - (고용안정) 기간제·과건,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정규직 전환 지원 ('26안. 69억원, 1,500명),
 - (노동시간 단축) 주 4.5일제 도입 지원, 워라밸 보장('26안. 276억원)
 - * 주 4.5일제 도입 시 실시 인당 최대 60만원 지원, 신규채용 시 추가지원(최대 80만원)
 - (환경개선)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대전환 → 반복적·고강도 작업, 유해·위험공정 노출 및 산재 위험 최소화
 - * 예: ▲ (중기부) 중소·중견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(4.3천억원)
 - ▲ (산업부) AI 팩토리 확산('26. 2.2천억원)
- [자산형성] 청년미래적금 신설, 지역 中企 근속장려금 확대('26년~)
 -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,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(채용 후 6개월 이내)에게는 기여금 2배 매칭('26안. 7,446억원)
 - * [대상]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(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), 가구중위소득 200% 이하 청년 [지원] 청년 月 최대 50만원 납입→정부 기여금 매칭(납입금의 6%, 中企 신규 취업자는 12%)
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(최대 2년간 480만원)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 + 인구감소지역 우대('26안. 5만명)
 - * ▲ (기본) 최대 480만원 → ▲ (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우대) 최대 720만원
- [성장지원] 구직자 중심 진로·경력상담을 쏠 재직청년에게 확대, 일하는 기간 중 산업 내 경력개발이나 직무전환 지속 지원
 - 신입 대상 팀웍·소통방법 교육, '가까운 선배 경력자' 멘토링 제공
 - * (사례) SW산업협회: 미래플러스사업으로 네이버·카카오 등 7년 이상 재직자 멘토링 제공
 - 고졸 인재 성장경로 MAP 구축, 디지털 플랫폼으로 직무별(16개) 커리어 설계 지원 → 직무확장, 필요역량, 기대임금 등 안내('26.~)

4 청년고용 법·제도 등 인프라 정비

□ 쉬었음 청년 지원 등을 위한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정비

-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('26년~)

쉬었음 청년 지원 관련 신설 조항(안)

- ▶ 고용노동부 장관·지자체·시도교육감에게 청년이 졸업 후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, 특정 기간 내 조기개입·지원 의무 부과
- ▶ 졸업 후 미취업 등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해 ▲청년 동의 기반 개인정보 수집, ▲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대상 정보제공 요청, ▲관련 DB 구축·운영 근거 신설

- 기대수명 연장, 정년연장 추진,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 등 고려, 「청년고용법」 상 청년연령을 '29 → 34세'로 상향 추진('25.下~)

* 시행령상 청년연령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 규정('26.上)

- 생애소득기반 경력 설계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활용 근거 마련,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법적근거 명확화('26년~)

□ 일경험 법제화로 지원 확대, 분쟁 예방, 참여 활성화 유도

- 일경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참여 주체별 자격·의무·지원 사항 등 규정, 안정적 사업 운영 도모

일경험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제(안)

- ▶ (법적 정의 개념화) 법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'일경험' 및 참여 청년·기업·운영기관 등 정의
- ▶ (참여 주체별 규정) ▲참여 청년의 자격·의무 및 권익보호 범위, ▲참여 기업의 자격·의무 및 인센티브, ▲운영기관의 자격 및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
- ▶ (파트너십 구축) ▲부처간 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협업 의무, ▲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등
- ▶ (포털 운영 관련) 일경험 포털 상 정보 연계를 위한 부처·민간 등 협력 근거 및 관리 규정 등

☞ 금년 중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개정 추진,
쉬었음 예방·해결 및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

추진 과제	소관	추진 일정
① 쉬었음 청년: 「일자리 첫걸음 플랫폼」으로 발굴-접근-회복 지원		
[발굴] 학생 및 군 장병 정보 수집, 미취업 청년 DB 구축		
▪ 「일자리 첫걸음 플랫폼」 구축, 니트 위험 관리대상 선정	청년	'26.上~
[다가가기] 온라인 유인 + 오프라인 1:1 접촉		
▪ 온·오프라인 1:1 접촉 추진	청년, 서비스	'26.
▪ 「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+센터」 10개소 지정·운영	청년	'26.
[회복]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 하도록 지속 지원		
▪ 사회연대경제·공공부문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 활성화	청년, 통합	'26.
▪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마음관리·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 지원	직능	'26.
▪ 고용센터 심리 상담 강화(청년 신속 지원, 협업체계 구축 등)	서비스	'26.
② 구직 청년: 현장에서 배우고, AI를 기회로 도약		
[기회] 대기업 청년 일경험·훈련 확대 캠페인 실시		
▪ 기업+경영자단체+정부 공동 인턴·일경험·훈련 확대 협약식	청년	'25.末
▪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 릴레이 개최	서비스	'25.9~11
[성장] AI 활용인재 성장 3단계 트랙 신설 (훈련-일경험-채용)		
▪ AI·AX 전문인력 양성(KDT)	직능	'26.
▪ KDT 훈련 및 일경험 연계, AX 인재 채용박람회 추진	직능, 청년	'26.
[취업] AI 취업전략 수립과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		
▪ 구직촉진수당 확대	서비스	'26.~
▪ 생애 노동소득 기반 경력 설계 지원	청년, 개혁	'27.
▪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	지원	'25.8~
③ 일하는 청년: 기본을 지키고, 존중받으며, 성장하는 일터 확산		
[기초] 체불·산재·괴롭힘 없는 일터 정착		
▪ 기본을 지키는 기업 정보 제공	청년	'26.
▪ AI 노동법 상담,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서비스 제공	개혁	'26.

추진 과제	소관	추진 일정
▪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상담·분쟁해결 지원	개혁	'25.下
▪ 저소득 노무제공자 보험료 지원, 육아 등 부문별 지원	서비스, 통합	'27.~
▪ 임금체불 근절, 포괄임금제 제한, 가짜 3.3 감독	기준	'25.9~
▪ 영세사업장 위험 요인 제거 및 노동환경 개선	산안	'26.
[발전]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하는 일터 조성		
▪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	청년	'26.
▪ 기간제·파견,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정규직 전환 지원	기준	'26.
▪ 주 4.5일제 도입 지원	개혁	'26.
▪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대전환	중기부, 산업부	'26.~
▪ 재직청년 멘토링·경력상담, 고졸 인재 커리어 설계 지원	청년	'26.
▪ 청년미래적금 신설	금융위	'26.
▪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근속장려금 확대	청년	'26.~
④ 청년고용 법·제도 등 인프라 정비		
▪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정비	청년	'26.
▪ 일경험 법제화	청년	'26.

